

남구 ‘민주 對 非민주’ 일대일 구도

시민단체·野 4당 후보단일화 합의… 오늘까지 여론조사로 결정

임내현, 장병완 지지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민주당과 비 민주당 후보 간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 진영과 야 4당은 13일 이번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비(非) 민주당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로 나선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관과 비 민주당 단일 후보의 한관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이 참여한 ‘시민사회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YMCA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구체적인 단일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궐선거가 압박감에도 ‘야권연대’는 난관에 봉착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다”며 “구태의연한 민주당을 제척시키고 진정한 반MB 야권연대와 나아가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일후보를 추대한다”고 밝혔다.

후보 단일화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오는 14일까지 광주 남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00% 여론조사로 결정되며,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법 등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후보 단일화 결과는 14일 오후 2시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단일화 대상은 야 4당 가운데 후보로 등록한 민노당 오병운 사무총장,



광주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은 13일 오전 11시 광주YMCA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남구의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비(非)민주당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민참여당 장우철 광주시장 정책위 부위원장이다.

장우철 후보는 “민주당의 독점구조가 강화되면 될수록 광주의 민주주의는 퇴보한다”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독점구조를 깨 광주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병운 후보는 “민주당이 광주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회초리를 들어야하는 시기”라며 “시민사회 진영과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회초리를 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비 민주당 후보 단일화에 맞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된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관은 당 관계자들과 함께 공천경쟁을 벌이다 탈락한 후보들과의 접촉을 확대해가며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무소속 출마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애초 공천경쟁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설 등이 흘러나왔지만, 대부분의 후보가 이날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고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출마설이 제기됐던 이운정 민주당 남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무소속 출마를 권유했지만, 수십 년간 몸담아온 민주당을 탈당할 수 없어 남아서 새롭고 활력있는 민

주당을 건설하는 길을 택했다”고 밝혔다.

정기남 예비후보도 “전략공천에서 보여준 지도부의 행태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광주 민심에 반하는 매우 오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한나라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선거이므로 당원으로서 보궐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기계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던 임내현 전 변호사도 이날 민주당 승리를 위해 장병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대선 승리하려면 남구 양보를”

천정배 의원 “영포화 문제 대통령이 책임져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3일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진보세력이 정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야권단일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광주 남구를 다른 야당에 양보하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

자간담회를 하고 “서울 은평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리인이자 나라를 망치는 4대 강 사업의 전도사인 이재오 전 의원을 이기려면 야권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광주에서 희생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과문과 관련해 “영포화와 선진연대 등 비선조직의 끈을 보면 국가 위에 군림



하고 국력을 사유화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선량한 민간인을 압살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형인 이

상득 의원 등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천 의원은 “현재 당이 매우 폐쇄적이고, 지난 6·2 지방선거 공천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당을 쇄신시켜 수권정당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 남구 선관위

광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마지막날인 14일 오후 6시 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민들에게 이번 선거를 건전한 정책경쟁 중심으로 치르겠다고 약속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서’ 서명과 함께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루떡 컷팅식 등으로 진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권력 견제론” VS “제2 정권심판론”

■ 여야 재보선 전략·판세 분석

여야는 13일 7·28 재·보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제재에 들어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의 지방권력 견제론’과 ‘제2의 정권심판론’을 각각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여야 모두 판세가 만만치 않음을 강조하며 재·보선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략=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인 야당을 견제해야만 힘의 균형이 생겨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을 지방선거에 이은 ‘제2의 정권심판의 장(場)’으로 규정하고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데다 여권 내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판세=이번 재보선에 치러지는 8곳 중 한나라당이 차지했던 지역이 강원 원주 1곳에 불과한데다 한나라당이 패배한 지난 6·2 지방선거의 민심 흐름에서 볼 때 이번 재·보선도 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1~2곳에서, 특히 서울 은평을에서만 승리해도 체면을 지키게 되지만 민주당은 6곳에서는 승리해야 자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 은평을의 경우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장 상 민주당 최고위원을 이남까지는 다소 앞서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하지만, 변수는 야권 후보단일화,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질수록 단일화 압박은 거세지기 때문에 막판 후보 단일화를 통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한나라당 이상권(전 인천지검 부장검사), 민주당 김희갑(전 국무총리실 정무수석) 후보가 맞서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송영길 시장의 지역구여서 야당의 우위가 점쳐진다. 하지만, 이 후보가 17~18대 총선에서 이곳에 출마해 지역기반을 다진 터라 판세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남 천안을에선 한나라당 김호연 전 비그레 대표이사과 민주당 박완주 지역위원장, 자유선진당 박종현 비노기과 원장이 박빙의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 충주에선 지난 총선에서 2%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한나라당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기영 민주당 후보를 다소 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도 원주에선 한나라당 이인섭 후보보다 민주당 박우순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선 한나라당의 엄동열, 민주당의 최종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는 한나라당 한기호 후보가 민주당 정만호 후보보다 다소 유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남구 1명·은평을 6명 등록

재보선 후보 등록 첫날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3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광주 남구 등 전국 8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여야는 전국 주도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광주 남구 보궐선거는 이날 현재 출마를 선언하고 등록을 한 후보는 민주당 장병완 후보 한 명뿐이다.

장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광주 남구 선관위를 방문해 공식 후보등록을 마쳤다.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오병운 후보와 국민참여당 장우철 후보는 비 민주당 단일후보 결과 발표되는 14일 오후 2시 이후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강원도의 경우는 원주 등 3개의 선거구에 모두 10명이 등록을 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 은평을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도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 일제히 불광동 은평구 선관위를 찾아 등록을 마쳤다.

사회당 금민 후보가 가장 먼저 선관위를 찾은 데 이어 오전 10시를 전후해 한나라당 이재오, 민주당 장 상, 국민참여당 천호선, 민노당 이상규, 창조한국당 공성경 후보 순으로 등록했다.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인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장관이 후보등록 첫날인 13일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 선거구도 이날 민노당 박인숙 후보,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 민주당 김희갑 후보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충북 충주 선거구에는 무소속 맹정섭 후보와 민주당 정기영 후보 등 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한나라당 윤진식 후보는 14일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시 을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 민주당 박완주 후보, 자유선진당 박종현 후보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 다음날인 15일부터 시작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마이녹실 임상결과

마이녹실 92.9%가 효과 확인

마이녹실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결과, 마이녹실을 복용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10mmHg 이상 낮아졌고, 혈관 건강도 개선되었다.

마이녹실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결과, 마이녹실을 복용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10mmHg 이상 낮아졌고, 혈관 건강도 개선되었다.